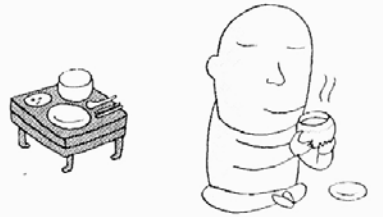


생활불교용어



그림·박구원

“그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일세.” 다반사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의 흔히 생기는 일을 말한다. 향다반사(恒茶飯事)가 줄여서 다반사로 변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와 도를 음미하는 차원에서 차를 즐겼다. 아랫사람은 좋은 차를 윗사람에게 드리고 싶었다고 친한 친구끼리 차를 나눠 마시려고 했다. 그래서 차가 예로 격성되었다.

“다반사의 일”을 ‘존경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승화시킨 예가 차례(茶禮)다. 우리는 한해가 시작되는 날에 조상의 얼 앞에 모여 경건히 밥을 드리고 차를 올린다. 이를 차례라고 한다. 차례를 지낸 다음 그해의 서원과 각오를 서로 나눈다. 가을이 되어 종년이 들

다반사(茶飯事)

삼매에 들면 평상심이 곧 불심 밥먹고 차먹듯 흔히 생기는 일

면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다려 조상에 드린다. 그래서 추석이란 명절이 생겼다.

다반사는 도(道)를 이루기도 했다. 차를 마시는 정신과 태도와 정성을 모으면 나름대로의 도를 이룬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래서 생긴 말이 ‘다도(茶道)’다. (동다송(東茶頌))에 따르면 차의 본령(本領)은 중정(中正)에 있다. 다관에서 차가 익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중정이 살아나면 차인(茶人)은 시공(時空)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다. 시공의 흐름을 알면 도(道)를 통했다고 할 수 있다.

차례는 형식이 우선이고 다도는 정신(精神)의 도(道)를 추구한다. 정신세계의 길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한다.

불교에서는 차와 선을 한 맥락으로 본다. 이를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한다. 차 마시는 정신이 선이 있고 선하는 과정에 다(茶)의 도가 통한다는 뜻일 것이다.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는 속에 삼매의 도가 있음을 알 때 우리의 다반사는 송고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경지를 알면 평상심이 모두 불심이 된다. 평상심 속에 불심이 있다고 본 경지에서라면 풀 한 포기, 꽃 한 잎이 모두 불심이 된다.

참고 안길모퉁 ‘이판사판 아담법석’

감·로·심·장·회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세살 교육환경 평생토록 영향”

어린이의 가소성과 불교적 환경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생물이며 그 가능성은 어린이 때 가장 크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걸을 수 있는 선천적 경향, 말을 할 수 있는 선천적 경향,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선천적 경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천적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잘 걷고, 말하고, 읽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크게 달라진다. 이것을 가소성(可塑性)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를 인도의 ‘늑대어린이’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0년 10월 17일에 2세된 ‘아마라’라는 여아와 8세된 ‘카마라’라는 여아를 늑대굴에서 구출하여 양육한 바 있다. ‘아마라’는 1년 후에 죽었고 ‘카마라’는 9년 후에 죽었다. 처음에는 이 두 여아는 육체만이 인간이고 행동은 늑대와 흡사하였다. 사지(四肢)로 기어 다니고, 생고기만 뜯어 먹고, 늑대 모양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늑대 소리와도 다르며 사람의 말소리도 아니었고,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찾아 다녔으며, 고기 냄새에 매우 예민했고, 음식은 땅에 놓고 혼자 먹지만 하며 옷을 입히면 찢어 버리는 등 인간의 접근을 싫어했다. 그러나 그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0)



그림·이준석

“어머니 따라 절에 다니다 미국가서 개종했으나 다시 불교에...”

후 인간과 함께 생활함에 따라 점차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변화했다.

또 하나의 예를 1988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내용에서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세퍼트 암컷이 돌봐 온 4살짜리 서독 어린이가 개와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고, 벌거벗은 채로 닭뿔을 씹으며, 세퍼트를 따라 기어 다니는 것을 본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호르스트 베르너’라는 이 어린이는 지금도 개처럼 짓고 코를 킁킁 거리는 것은 물론 엷던 채 팔을 앞으로 쭉 뻗고 그 위로 머리를 올려 놓고 잔다는 것. 지난해 그의 집을 방문했던 사회사업가들에 따르면 30세 아버지가 실직 상태 가정 형편이 엉망이었으며 부모들은 그를 개와 함께 두고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곤 했다는 것.

위의 두 예화를 보면 인간이 어릴 때 가소성(可塑性)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하여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간은 어릴 때 동물 세계에서 자라면 동물같은 행동 양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동물을 인간사회에서 길러도 인간같은 행동 양식을 배우지 못한다. 그 까닭은 동물에게는 가소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소성의 차이는 인간의 경우는 어린이와 어른의 행동상의 차가 대단히 큰 데 비하여 동물은 새끼와 어미의 행동차가 거의 없는 데 기인한다.

병아리는 계란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미 닭과 같이 걸을 수 있고, 소리내며 모이를 찾아 먹을 수 있다. 강아지의 경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큰 개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어른의 차가 너무나 심하여 그 기간도 상당히 길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여하에 따라 선천적 경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린이를 무리하고 미숙하다고 말할까 봐 걱정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및 교육 여하에 따라 달라지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존재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인간의 가소성은 크고 동물에 있어서는 가소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였지만 동물에 있어서는 가소성이 있다. 어떤 동물 학자는 ‘고양이 실험’을 한 바 있다. 고양이 새끼 59마리를 3군(群)으로 나누어 키웠다. 제1군은 고양이 새끼를 쥐새끼와 함께 키웠으며, 제2군은 고양이 새끼끼리만 키웠고, 제3군은 어미 고양이와 함께 키웠다. 이 새끼

늑대굴서 산 아이 늑대처럼 행동 절마다 아동교육프로 마련해야

고양이가 커서 쥐를 잡는 선천적 경향의 발현을 관찰한즉, 제1군은 18마리 중 3마리만 쥐를 잡고 15마리는 쥐를 못 잡았으며, 제2군은 20마리 중 9마리만이 쥐를 잡았고, 제3군은 21마리 중 18마리가 쥐를 잡고 3마리만이 쥐를 못 잡았다. 동물에 있어서 가소성이 이러하니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가소성(可塑性)은 어린이 어릴수록 크다. 이러한 예를 독립성에서 들어 보자.

독립성이 강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어릴 때 어른들의 몸에서부터 떼어서 키워야 한다. 업어 주고, 안아 주고, 품고 자라, 무릎 위에 앉히면서 키우면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 의존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간이 될 가능성도 또한 크다. 물론 어릴 때 형성된 사람 됨됨이가 평생동안 지속된다는 뜻은

아니며 어릴 때의 환경(부모도 일종의 환경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소성(可塑性)을 불교적 현상에서 해석하면 더욱 흥미롭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불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석가모니(釋迦牟尼)와 같이 부처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불성이 선세(先世)의 업으로 두텁게 가리워져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阿修羅)와 같이 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지만 불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동물은 가소성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소성이 큰 어린이에게 우리는 어떤 불교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는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불자의 한 사람으로 통렬하게 불교와 유교로 생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서울대사대 부설 교육행정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강습에 수많은 수녀 및 개신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단 한 명의 비구니를 만난 일이 없었던 점이다. 과연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서도 이 나라에 불교도를 건설할 수 있을까?

최근에 사찰에서도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천주교나 개신교가 설립한 유아교육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세이며 또한 유아나 아동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수한 프로그램이 각 사찰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불자인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불교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불자들의 부처님오신날 집안의 꾸밈새와 개신교 신자의 성탄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큼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부처님오신날 마치 개신교 신자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흡사하게 각 가정에는 연등을 반드시 걸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에 갈 때는 반드시 자녀를 동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어떤 여성불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개신교의 신자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때 불교적 경향이 솟아 올라 지금은 생활전체를 불교화 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불교적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가소성이 대단히 커서 이때 형성된 불교적 신행(信行)은 영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클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 책자내용의 요점설명

- 1) 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술
2) 양택풍수측면 :
① 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 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갓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본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람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신심깊은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한 시간을 내주시어 본회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스님께 도움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오며 실물을 직접보시고 스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관측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해서도 자신의 악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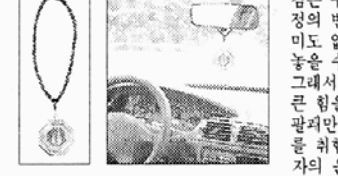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개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8cmx8cm ·가격 60,000원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스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맛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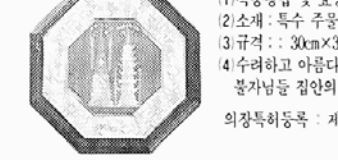
·소개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5cmx5cm ·가격 60,000원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펼쳐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실재가 온 시기를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할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이 담방에는 주역의 관에서 말하는 경상(吉相)인 광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광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경혼 (2)명성 (3)부 (4)가장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관괘의 광상형에 음양의 불합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결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음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려두는 총괄 팔상탑주



의장특허등록 제12136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관계와 음양의 조화, 심지어 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담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족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성지관음회